

영광군, 스마트복합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편리하고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사업 접근성·이용 활성화 국도 연결로 개선 도로계획안 수립 제시

영광군은 지난 20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강종만 군수와 군의회 의원, 부군수, 실과소장 및 주민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도77호선 영광군 스마트복합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스마트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지역주민 및 도로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 제공

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 스마트복합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축설계 공모와 관계기관 현장 조사 및 합동회의 등을 거쳐 실시설계를 추진해 왔다. 이번 보고회는 착수보고회를 통한 의견수렴 반영 사항과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토대로 건축 내부 공간구조 및 평면계획, 외부 공간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스마트복합센터 접근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도 연결로 개선 도로계획안을 수립 제시하였다. 강종만 군수는 “철산대교 주변에 건립되는 스마트복합센터는 관광객 및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휴게·문화 공간 제공,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공간조성은 물론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거점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내실 있게 설계하여 최적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과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공유재산 운영 실태 점검 근대건축물 보수 및 공적 활용 중인 매입 건축물 대상

목포시가 원도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의 공유재산 운영 실태를 오는 24일까지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등 현재까지 운영 중이거나, 활용 준비 중인 총 8개소이다. 최근 문화재적 가치와 공공의 목적에서 매입한 근대건축물이 최근 운영 및 활용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문제점을 찾아 해소하고자 운영 실태와 향후 계획을 적극적으로 점검해, 원도심 재생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한다는 취지이다. 목포의 원도심은 조선시대 목포진부터 근대 자주 개방의 역사, 산업화 시기 변화한 항구도시로 발전하기까지 시간의 쉼을 담은 '지붕없는 박물관'이다. 목포시가 이런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한 근대건축물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이다. 이곳은 현재 리모델링을 통해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 도시 목포의 위상에 걸맞게 찜질방 실험실(스튜디오, 메이커 스페이스)을

운영하며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해 왔다. 이외에도 목포시가 매입한 공유재산은 민간의 창업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유달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마술카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술과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곳은 휴식과 더불어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구 갑자옥 모자점과 함께, 인접한 야마하 신외기 건물은 조선인 모자 상점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현대적인 트렌드를 반영해 목포 모자아트갤러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토대로 관련 시설에 대한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대중음악의 전당에 더 많은 관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찜질방 실험실은 목포문화도시센터와 함께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폐업한 주전부리 판매점은 새로운 위탁자를 모집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무안군,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계절근로자 도입운영

일손 부족 현상 해소 기대

무안군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고자 무안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하반기 도입 운영을 위한 농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군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무안군에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의 농가 내에서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농가여야 한다. 무안군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은 614명으로 그 중 베트남 234명, 중국 129명, 필리핀 105명, 일본 57명, 캄보디아 37명, 태국 22명, 기타 30명으로 다양한 이민자가 거주해 많은 결혼이민자가 신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청대상은 신청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이며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여야 한다. 체류가능 기간은 90일(C-4비자), 5개월(E-8비자)이다. 하지만 결핵,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사증발급신청서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사람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다음달 8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및 결혼이민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농업업종영체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명호 농정과장은 "계절근로자 제도로 인해 농가의 부족한 일손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기간 내 꼭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안=이성기기자

신안군, 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 최종 승인 광역상수도 공급 통한 항구적 먹는 물 부족 문제 해결 기틀 마련

신안군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이 최종 승인되면서 신안군 전 지역(흑산권 제외)의 항구적 먹는 물 부족 문제 해결할 광역상수도, 비상급수체계 및 마을상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신안군은 천사대교(19. 04), 임자대교(21. 03) 개통과 퍼플섬 최우수 관광마을을 선정 등에 따른 관광객 증가 및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지역의 용수 수요량을 예측하여,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확충 정비를 통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였다. 신안군은 "이번에 변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급증하는 용수 수요에 대비하고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간 비상연계가 가능하도록 상수도 비상연계관로 구축,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마을상수도 정비 등 향후 정수장 증설 등에 필요한 기반을 도입하는 등 수도시설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신안=이택주기자

이번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안에는 2025년까지 중부권(암태, 자은, 안좌, 팔금) 광역상수도 공급 및 장산도 비상연계 관로 설치와 2030년까지 비금, 도초 비상연계 관로 설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 1,948억의 예산을 승인받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해 170만명이 넘게 신안군을 방문했으며 금년에는 2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앞으로도 매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안군을 찾아주시는 방문객과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금번 마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향후 "풍력·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대규모 해수 담수화 사업을 추진하여, 이번과 같은 극심한 가뭄과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택주기자

함평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접수

2월 27일~3월 17일까지 신청

함평군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함평군은 "땃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태양광 전기목책기, 경음퇴치기 등 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함평군에 1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으로, 설치지역이 관내에 소재해야 한다. 단, 농림부의 FTA기금 등 관련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각종 세금을 체납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자부담 40%) 피해 발생빈도, 재배작물 등 우선순위를 반영해 '함평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서, 설치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함평=김광준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